

몬테소리의 가톨릭시즘에 의한 어린이들을 위한 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 활동

조 성 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아동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가톨릭 입장에서 바라본 몬테소리의 종교교육에 근거한 어린이들을 위한 종교교육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톨릭적 측면에서 바라본 어린이들의 종교관은 마태오 복음서 11장 15절에서 “...이 모든 것을 어린이들에게 계시하셨으니..., 너희들이 어린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 양식은 바로 그들에게 선한 종교적 본능과 영적 태아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가장 훌륭한 종교교육은 예수의 삶처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인 영성을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종교심을 표상할 수 있는 종교교육 연습장인 아트리움을 준비된 환경으로 제공하여 영성을 들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유아교육이 유아교육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성취하듯, 가톨릭교회의 전례력에 의해서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의 의미까지 실제와 똑같은 형태로 실천할 수 있는 아트리움을 통해 내면의 종교심을 외부로 표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몬테소리의 종교교육은 모든 종파를 초월하여 어린이들에게 내재해 있는 영성을 양육하여 그들에게 삶의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이들의 종교적 본능에 대한 해석, 어린이들의 종교심 발달과 어린이들의 종교심과 영성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어린이들의 영성과 타-학문적 관계를 분석하여 어린이들의 종교교육을 위한 실천방법을 제공한다. 어린이들은 우주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들은 유아기에 종교교육, 우주교육, 평화교육, 생태교육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핵심 주제어 : 몬테소리, 종교적 잠재능력, 영성, 전례력, 아트리움, 우주교육, 평화교육, 준비된 환경

I. 들어가는 말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영혼에 점화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한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게 종교심이 본능적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찬·반론에 의문점을 가진다. 그녀는 인류는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전제는 그녀의 종교적 세계관이 어린이들을 위한 종교교육영역에서 고려되어질 때 비로소 완전하게 발달하고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의 활동적인 내적 에너지를 하느님과 관계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로서 파악한다.

몬테소리의 종교교육은 모든 종파를 초월하여 어린이들에게 내재해 있는 영성을 양육하여 그들에게 삶의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종교적 본능에 대한 해석, 어린이들의 종교심 발달과 어린이들의 종교심과 영성 차이점에 대한 이해, 어린이들의 영성과 타-학문적 관계를 분석하여 어린이들의 종교교육을 위한 실천방법을 대부분이 가톨릭의 전례력에 의해서 실천하는데 이를 유아교육현장으로 옮겨 놓은 몬테소리의 종교교육이론과 실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면서 어린이들의 종교적 본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아교육현장에서 가톨릭시즘에 근거한 전례력, 예수님의 생애, 영성에 대한 실천이 몬테소리 종교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유아교육현장인 아트리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어린이들의 일반적인 종교심에 관한 연구 중에서 유아교육학자인 몬테소리의 어린이들에 관한 종교적 관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II. 어린이들의 종교적 본능

몬테소리는 “...이 모든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계시하셨으니...”(마태 11,25)라는 말씀은 어린이들은 본능적으로 순수함, 깨끗함, 선한 본능가운데 종교심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환경을 만들어 교육할 수 있는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종교교육은 어린이들이 갈망하는 평화로움과 만족감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인식하여야 한다.²⁾

1) Montessori M., *I bambini viventi nella chiesa, La vita in cristo, La santa messa*, 조성자 역, 『몬테소리의 어린이들을 위한 종교교육』(대구: 미루나무, 1993), 41쪽.

그녀는 이러한 어린이들의 종교적 본질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종교교육 연습장인 아트리움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예수의 생애를 태어나서 부활하실 때까지를 즉 전례력에 따라서 준비된 환경 속에서 교구와 함께 실천하는 교육 연습장이다. 그러면 어린이들의 종교적 본능이 어떤 방법으로 표출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어린이들은 신비스러운 종교적 인식능력을 통해서 종교심을 표출한다.³⁾ 실제로 어린이들은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성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떤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는 누군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랑, 바람, 공기처럼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을 가진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본능이다. 예를 들면 “너의 잘못을 예수님에게 알릴거야.”와 같이 표현한다.

어린이들의 개별적, 인격적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하느님의 영성과 지혜인 종교심에 근거하며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로 이끌어간다.

어린이들의 개인적인 인격형성은 종교심에 근거하여 영성적인 삶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제공할 때 가능하다. 인간, 특히 어린이들에게 영성은 그들의 활동을 자유로우며, 만족스럽고, 행복하도록 만들면서 인간을 타 존재와 차별화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어린이들의 종교심과 도덕성을 인간의 본질적 요소로 본다.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의 종교심과 도덕성의 본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⁴⁾

“여러분들은 경우에 따라 이성적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종교심과 도덕성은 것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인간에게 종교심과 도덕성이 결여된다면 인류발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무엇인가 결여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몬테소리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해 있는 종교심을 인간의 가장 고유한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몬테소리는 종파를 초월하면서 교의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노력은 다른 종교와 타 문화를 관대함으로 수용하려는 범종교관적 사고이다. 어린이에게 규칙, 질서, 선, 악의 표현은 종교적 본능을 통해서 표현한다. 몬테소리는 어린이집의 한 어린이가 다음과 같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⁵⁾

“한 어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면서 말하였다. 나를 너무 많이 야단치지 마십시오. 나는 달을 쳐다보고 있는 동안 내가 선생님에게 정을 끼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느님 마음을

2) Montessori M., *La Scoperta del Bambino*, 조성자 역, 『어린이의 발견』(서울: 창지사, 1996), 415쪽.

3) Bene-Schulz G., *Gott und das Kind*(Freiburg: Herder, 1996), p.68.

4) Montessori M., *L'autoeducazione nelle scuole elementari*, (Firenze: Garzanti, 1973), p167.

5) Montessori M., *I bambini viventi nella chiesa, La vita in cristo, La santa messa*, 조성자역, 『몬테소리의 어린이들을 위한 종교교육』(대구: 미루나무, 1993), 43쪽.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직 종교적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가 하느님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내면에 이미 종교심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몬테소리가 종교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내면에 있는 종교적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 단일 국가를 형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를 원한다.”고 하였다.⁶⁾

어린이들이 교실에서 공동작업과 공동 활동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면서 학습효과를 내는데 성공하여 정상화로 진화되고 변화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어린이들의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쁨 속에서 종교적 본능을 발견하였다.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이 종교교육 연습장에서 실제적으로 전례력에 참여하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례력에 의한 활동에 몰입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어린이들에게 다른 활동처럼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종교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종교심을 드러낸다. 어린이들의 특징은 볼 수 없는 것을 실제로 본 것처럼 정확하게 의인화 한다. “하느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느님이 계신 곳은 아름다워요.” 잘못된 친구에게 “너 하느님으로부터 야단맞을 거야.”라는 표현방법은 실존 인물처럼 확신감을 가지고 의인화하면서 생활한다. 어린이들의 이러한 종교적 태도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본능적으로 의존하는 인격전체의 구조화이다.

부모와 교사들은 어린이들에게 음식과 같이 중요한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도록 환경을 마련하여 하느님과 어린이의 관계에서 그들의 본능적 요소인 종교심과 만나서 사랑으로 충만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삶의 에너지로서 하느님 말씀을 충분히 실천하여 영성적으로 다가 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의 종교적 본능을 진화의 개념으로 본다.⁷⁾

진화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질서를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린이들은 영적태아 본능을 정상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발달시켜 준비된 환경속에서 자아실현, 육화, 현실화는 사랑의 질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양육된다. 어린이들이 사랑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창조질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개인의 삶이란 단지 생존을 위한 자기목적의 의미도, 생존을 위한

6) Montessori M., *Educazione & Pace*, 조성자 역, 『교육과 평화』(서울: 창지사, 1990), 53쪽.

7) Cavalletti S, *Il Potenziale Religioso del Bambino*, 조성자 역, 『어린이들의 종교적 잠재능력』(서울: 중앙성서출판사, 1996), 116쪽.

생태학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학의 발달만도, 사회의 질서를 위한 투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느님과 관계, 나와 타자와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에서 다른 존재와 가깝게 마주서서 공존의 관계 즉 전-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개인적 생활은 물건을 만들었다가 부수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성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며 각자의 작업과 노력을 통해 정상화로 진화하여야 할 우주적 사명감을 가진 존재다. 몬테소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우주적 사명감 속에 내재한 의무감은 나와 하느님과 관계, 나와 타자와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에서 우주 전체와 전-관계를 이루면서 자연과 조화를 통해서 삶의 목표를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발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몬테소리의 종교적 세계관은 인간의 본질을 생물학적이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시사 하 듯 자기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타-존재에 대해 책임감을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를 자유 속에서 발견하려고 노력 한다. 그래서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에게 “자유는 활동이다.”라고 말한다.⁸⁾ 어린이들은 활동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기에 성공하여 삶의 에너지를 충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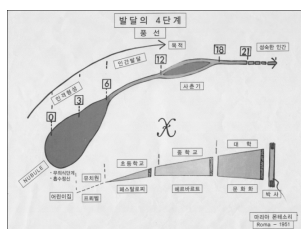
Ⅲ. 어린이들의 종교심 발달

몬테소리의 교육은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돕는 교육이며 생명을 돕는 교육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어린이들의 서로 다른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고유한 인격적인 존엄성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인간학 속에는 종교적 인간학을 포함한다. 몬테소리는 종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인간에게 종교가 결여되었다면 인류발전에 근본적인 무엇이나 어떤 것이 결여된 것과 같은 것이다.”⁹⁾ 몬테소리는 인간 생명체를 이미 영적 태아라고 말한다. 태아는 이미 어머니의 태내에서 육체 속에 정신을 포함하여 영적인 존재로서 삶을 이어가는 미완성된 존재이다. 영적 태아는 모든 발달을 안내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육화를 시작한다. 신생아는 영적 태아로 태어나서 육화와 사회화를 거치면서 사회적 태아로 발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한다. 영적 태아의 본질은 어린이들을 종교적 존재(Homo Religiosus)로 발달하도록 돕는다.¹⁰⁾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은 영적태아기를 거쳐서 발달하였기 때문에 모든 발달 가능한 잠재능력이 내재해 있듯이 종교심도 내재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영적 태아는 발달단계에서 종교심은 종교적 민감기를 촉진하고 활성화한다.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의 발달을 4단계로 구분한다. 발달단계의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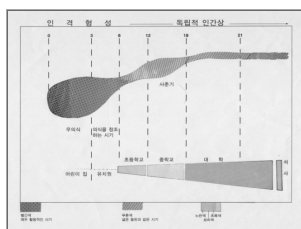
8) 조성자 편저, 『Maria Montessori의 자유개념과 자유작업의 원리』(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6), 28쪽.

9) 안만순, 『인격교육과 몬테소리』, 『어린이의 세계』 창간호(대구: 한국몬테소리교육총연합회, 2008), 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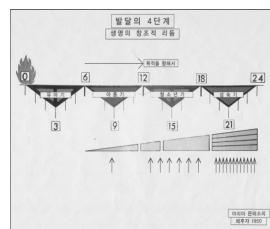
10) Montessori M., *La Mente del Bambino*, 조성자 역, 『어린이 정신』(서울: 창지사, 1991), 85쪽.



〈그림 1〉 발달단계



〈그림 2〉 인격형성 단계



〈그림 3〉 어린이들의 민감기

위 그림에서 보듯이 유아기인 0-6세, 아동기인 6-12, 청소년기인 12-18세, 18-21세인 성인기로 구분한다. 몬테소리 모든 생명체들은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누블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누블레는 소위 말해서 DNA와 같은 유전인자로서 종의 특성을 의미한다. 유아기인 0-6세까지는 인간발달이 최적기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그림에서 붉은 색으로 표현한 것도 마치 불덩어리처럼 강렬하게 발달하고 인격형성의 정점을 의미한다. 위 오른쪽 그림에서 0-6세 사이 종교적 민감기는 3세로 표시한 것은 일반적인 민감기와 일치 한다.

몬테소리는 영 유아기인 0-6세 사이에 유아들이 기본적인 인격을 거의 형성하는데 특히 0-3세 이전에 인격을 더욱 활발하게 형성한다는 것이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0-3세를 더욱 붉은 색으로 표시한 것은 생물학적, 인지적 발달이 폭발적으로 발달함을 의미한다.

카발레티는(Cavalletti S)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¹²⁾

“0-3세의 어린이들에게는 학구적인 종교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심을 발달시키고 종교심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란다면 자연스럽게 종교적 본능을 표출할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종교심은 어른들과 비할 수 없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의 종교적 민감기인 3-6세에 종교심을 발달시키는 최적의 단계다. 5-6세의 어린이들은 “우리들은 처음에 누구로부터 생겨났어요?, 하느님은 계세요? 세상은 어디에서 생겨났어요?” 등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확실한 실존과 모습을 인간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어린이들에게만 나타나는 종교적 현상에 대한 질문에 답을 몬테소리는 종교교육 연습장인 아트리움에서 찾았다.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종교적 민감기는 복음선포(Kerigma)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아들은 듣기의 민감기를 통해서 단순하고 겸손하게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만 객관적으로 사심 없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시기에 어린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자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 선포를 자연스럽게 흡

11) 조성자, 『몬테소리의 과학적 교육학』(서울: 신정, 2007), 189쪽.

12) Cavalletti S, 위의 책, 93쪽.

수하여 수용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¹³⁾

IV. 어린이들의 종교심과 영성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영성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⁴⁾

어린이들은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위대한 잠재능력을 본능적으로 부여 받고 태어났다. 그러므로 교육은 더 이상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적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위대한 잠재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어린이들의 영성을 개발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영성을 자기 환경 속에서 생활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영성의 의미를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영성을 어원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이탈리아어의 ‘스피리토(Spirito)’는 라틴어의 ‘스피라레(Spirare)’에서 유래하고 있다. 즉 생명이 숨 쉬고, 생명을 움직이도록 하는 힘, 유기체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활력소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몬테소리는 영성이란 종교에서 논하는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는 교의의 힘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삶을 돕는 엄청난 생명력인 동시에 삶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였다. 어린이들의 삶을 돕는 힘 또는 삶의 에너지는 모두 영성적 요소로 볼 수 있다.

몬테소리는 이러한 힘은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사랑은 인간이 진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강한 힘이다. 영성적인 측면에서 진화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동적인 힘이 아니라 창조적 능력에 사랑의 힘을 부가시키는 것이라 한다.¹⁵⁾

영성은 어린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성은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도록 돕는 힘이다.

어린이들이 모든 생명체와 상호-연결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에 관심을 가지고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힘을 만든다. 어린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몬테소리는 영성이란 어린이들이 감각적인 경험을 넘어서 지적인 존재로서 자각할 때 느낄 수 있는 힘이다.¹⁶⁾

13) 위의 책, 199쪽.

14) Montessori M., *La Scoperta del Bambino*, 조성자 역, 『어린이의 발견』(서울, 창지사, 1996), 413쪽.

15) Aline D. Wolf., *Nurturing the Spirit: in Non-Sectarian Classrooms*, 조성자 역, 『어린이들에게 영성은 존재하는가?』(서울: 창지사, 2000), 27쪽.

예를 들면, 밤하늘에 별을 관찰하거나 바다 속에 산호초와 같은 동식물을 관찰하는 것, 자연 속에서 경외감,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 내면의 세계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파노라마를 그리고 있을 때, 싸움보다는 평화를 느낄 때, 욕심보다는 나눔을 행할 때, 무의미한 경쟁보다는 협력하려는 자세로 행동 할 때 어린이들은 영성적인 존재다. 이러한 행동은 바로 어린이들에게 영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현상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영성은 생명체들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다. 새들이 노래하는 것, 나무들이 자라나는 것, 사람들이 즐거운 일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슬픈 일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 자신을 좋아하는 것은 영적 본능에 의한 것이다. 감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랑과 같은 것, 진화를 이끌어 가듯 자신의 생명력을 이끌어 가는 어떤 위대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숨 쉬듯, 호흡하듯 필요한 것이다. 몬테소리는 이러한 힘을 생명력(Élan Vital)이라고 말한다. 영성은 생명력을 더욱 강하게 활동하도록 촉진한다.

영성은 어린이들에게 인간 존재의 의미를 확인시키는 요소이다. 영성은 인간이 지적 존재임을 확인시켜서 모든 각자의 믿음과 부모 그리고 자연현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돕는다. 몬테소리는 태아기의 생명체를 영적 태아라고 부른다. 영성은 살아가면서 형제애를 촉진하고, 가족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모든 창조물을 보살피면서 서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돕는다. 서로의 존재를 겸손하게 확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영성은 어린이들의 생활을 확장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다. 어린이들의 영성은 경험을 통해서 확장된다. 어린이들은 다른 친구들과 생명체와의 관계 속에서 경외감을 경험함으로써 모든 것이 서로 즐거움과 아름다움으로 연결되어 하나 됨을 인식할 때 서로가 기쁨을 공유하고, 겸손해지도록 충동하는 역할을 한다. 영성은 어린이들에게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인 동시에 자아를 개방하여 모든 생명체와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정신적인 요소이다. 영성은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를 더 깊이 연결하여 전 관계를 이룬다.

몬테소리의 영성은 어린이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삶을 도덕적이고, 긍정적으로 진화하도록 돕고 지지해주는 에너지 역할을 하는 내적 힘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영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양육하도록 돕는 것이다.¹⁸⁾

그녀의 종교에 대한 개념은 인간의 본성과 같이 중요한 요소로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종교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종교가들의 메시지인 영성적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 여기에서 연구자가 논하고자 하는 관심은 종교를 신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영성이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떠한 관계이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

16) 위의 책, 155쪽.

17) 위의 책, 55쪽.

18) 위의 책, 38쪽.

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종교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종교와 영성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종교와 영성의 차이점	
종 교	영 성
종교는 생명창조와 의미에 관한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질문에 답을 준다.	영성은 실존적으로 나는 누구일까, 우주적 과업은 무엇일까,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등등에 질문하면서 의미를 찾아 간다. 우리만의 생존이 아니라 타인과 공존의 의미를 찾는다.
인간 집단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신념과 행동을 나타내는 것. 종교집단의 기도, 교의, 예식을 중요시한다.	인간 본질의 기본적인 자질이다. 말씀에 의한 실천적인 행동을 중요시 한다. 영성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친다.
모든 종교는 존경받는 창시자가 있다. 예를 들면 예수,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등등	한 개인의 창시자 보다 그 창시자의 영성과 말씀을 따른다. 영성가들은 평화, 보존, 가치, 희망, 감사하는 마음, 열린 마음, 우주적 과업에 동참한다.
세상의 전쟁은 영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종교개혁(면죄부)	모든 종교는 모든 영성을 중요시한다. 종교는 갈등을 일으키지만 영성은 항상 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실천과 활동을 요구한다. 영성을 실천적인 행위에 초점을 둔다.
종교는 신을 중심으로 특징적으로 종교에 헌신하기를 원한다.	종교적 헌신보다는 그 종교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요구한다.
선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슬픔, 아픔, 고통을 위안한다.	슬픔, 아픔, 고통을 위안을 위로할 수 있는 정신을 원한다.
모든 종교는 신자들을 위한 상징물, 기도문, 예식을 중요시한다. 종교이론을 중요시한다.	영성은 형식화된 표현물들이 없이 인간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어준다.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요시 한다.
종교는 조직화된 공동체 내지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다. 종교집단을 강화 한다.	영성적인 사람은 특정 조직이나 집단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 영성은 모든 종교를 초월한다. 모든 종교집단의 의미를 공유하려고 노력한다.
종교는 자기 신의 영성만을 강요한다.	영성은 종교 간의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하나 됨에서 의미를 가진다. 종파를 추월하여 영성을 실천 한다.
종교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리스도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 도교, 이슬람교 등등...	모든 종교는 공통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종교는 선과 사랑을 지향한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랑, 용서, 진실, 진리, 친절, 동정심 등등	영성을 이러한 공통점을 실천으로 이끌어 간다.
종교는 각자가 믿는 하나 즉 자기만의 종교를 원하고 신봉한다.	영성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자기가 믿는 특정 종교의 신념을 따르도록 권유하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 용서, 관용을 베풀기를 원한다. 두 가지 측면에 성실한 사람들을 영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의 특정 교의에 따라서 생활할 것을 강요한다. 사람들을 자기가 믿는 종교에 몰입하여 추종자가 되기를 원하고 때로는 정치적이기도 하지만 영성은 순수하게 그 종교가 원하는 정신과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권고한다.

몬테소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종파를 초월하여 ‘하나 됨으로 열린 마음, 열린 자세’를 가지고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의 고유의 특성인 문화를 이해하면서 영성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실천교육방법이다. 몬테소리 교실에서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가 영성적으로 양육 되도록 교사의 특별한 자세를 원하면서 교사의 영성을 강요한다.

V. 어린이들의 영성적 본질

어린이를 위한 종교교육자인 소피아 까발레티(Sofia Cavalletti) 교수는 어린이들의 영성적 결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⁹⁾

“유아기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영적 영양 결핍상태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종교교육보다 우선 위의 영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영양 결핍을 충족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체험이고, 사랑은 인간존재에 있어서 생명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단지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특히 어린이들은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다시 사랑을 요구한다.”

어린이들의 영성적 본질에 대해서 몬테소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²⁰⁾ 어린이들은 이미 영적 존재이다.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의 영성적 본질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 태아로서 영적인 본질이 내재한 것을 교육환경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돕는 것이다. 몬테소리는 움츠려 있고, 폭력적이고, 문화 결핍이 되어 있고, 이기적이고, 정원의 꽃들을 마구 꺾고 밟아버리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교육과 환경을 통해서 정상화 과정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 속에 잠재해 있는 영성을 확인하였다. 어린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영성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성을 발달시킨다.

몬테소리가 1907년 어린이집에서 문화실조가 된 어린이 50명을 처음으로 교육하여 그들 모두를 정상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상화 과정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실증적 사건에서 볼 수 있다.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의 영성적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²¹⁾

19) Cavalletti S, 위의 책, 12쪽.

20) 위의 책, 53쪽.

21) Montessori M., *La Scoperta del Bambino*, 조성자 역, 『어린이의 발견』(서울: 창지사, 1996), 93쪽.

개원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 정원에 피어있던 꽃들을 마구 꺾고 발로 밟았던 어린이들이 꽃의 성장을 관찰하면서 꽃잎을 세고, 꽃잎을 비교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김 아랑 꽃”이라고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들 내면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교사와 성인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결과이다. 어린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정상화 과정으로 진화하면서 자기들의 본성을 드러내 보였다. 어린이들의 영성적 본능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드러낼 수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

어린이들 내면에 숨겨져 있는 영성은 폭력적인 환경, 이기적 환경, 존엄성의 상실, 가정문화결핍, 평화문화의 상실, 전쟁으로 인한 비극, 생태전쟁,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선보다는 악을 먼저 체험하게 된다. 이때 어린이들은 영성적 영양결핍에 오염된다. 반면 어린이들이 늘 평화 속에서, 사랑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감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영성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한다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영성을 드러내고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 영성은 어린이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정신적 요소이다. 몬테소리는 어린이 집에서 어린이들의 행동이 차츰 차츰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되는 것을 실증적으로 관찰함으로써 환경이 어린이들의 영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영성적 본능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린이들은 영성적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교육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사의 영성적이고 교육적인 자세이다.

어린이들에게 영성을 가르치는 중요한 사람은 교사와 부모이다. 교사와 부모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력자인 동시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며(Key person),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적 환경이다. 성인들이 어린이를 사랑과 평화 그리고 겸손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린이들은 삶 속에서 영성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영성적 본능을 드러낸다.

VI. 어린이들의 영성과 타 - 학문영역과 관계

몬테소리는 영성이 다른 학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어린이들에게 양육되어짐을 관찰하였다. 영성이 다른 타-학문과의 관계에서 영성과 우주교육, 영성과 평화교육을 중요시 하였다.

1. 어린이들의 영성과 우주교육

몬테소리는 우주교육과 영성의 관계와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²²⁾

“우리들은 어린이들에게 우주 전체에 대한 비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주의 일부분이고 서로서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총체적인 결합체 내지는 통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우주교육은 은하계, 태양계, 행성지구의 출현, 우주역사, 생명체인 동물, 식물, 인간의 출현함으로써 모든 초점을 인간에게 집중시키고 전체적인 학습에 내재해 있는 모든 것을 창조물과 연관시키고 창조물의 영성에 일치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우주에 근거한 우주영성교육이라고 부른다.

토마스 베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²³⁾

우주교육의 과제는 인간기술이 자연을 파괴하기 보다는 사랑하고 보호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며, 이러한 역할은 우리자신을 위해 준비시키는 우리들의 교육적 요구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어린이를 위한 미래의 영성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우선적인 목표는 생존을 위해 어린이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에 대한 존중감과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주교육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몬테소리는 우주 자체를 어린이들의 환경이라고 말한다. 어린이들은 모든 것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우주에 뿌리를 내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몬테소리가 영성을 우주교육과 관계지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주가 어린이들의 환경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교육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우주 전체에 대한 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은 우주 전체의 일부분이고, 서로 연결되어 통합하면서 총체적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²⁴⁾

몬테소리는 우주자체를 하나의 어린이를 위한 환경이라면, 어린이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여야 할 사명감을 가진다.

브라이언 스왈(Brain Swimme)은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무 생명체의 근원에 대해

22) Montessori M., *Educazione per un mondo nuova*, 조성자 역, 『몬테소리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어린이 교육』(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6), 27쪽.

23) Berry T, *The Great work: Our way into the future*, (New York: Bell Tower, 1999), p.27.

24) Montessori M., *La formazione dell' uomo*, 조성자 역, 『Maria Montessori의 어린이를 위한 인격형성』, 28쪽.

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²⁵⁾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통된 근원으로부터 발생하였다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다. 자신의 육체적 구성요소와 타자의 구성요소가 같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은 활동적인 운동에 의해서 출현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생명의 여러 형태들을 위로 거슬러 태양계에 이르고 다시 태초의 불덩어리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진다. 이러한 거대한 우주는 영성, 물질, 지성, 생명을 활동적으로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는 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도 진화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총체적이고 유동적인 조직으로 서로 연관되어 우주영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주교육은 영성의 뿌리에서, 영성은 우주의 뿌리에서 교육이 시작한다. 그리스어에서 우주라는 단어는 Universe와 Cosmo의 두 단어로 표현되는데 몬테소리는 Universe보다는 Cosmo, 즉 우주질서와 우주의 조화로운 조직으로서 Cosmo에 내재된 질서 속에서 모든 자연과 인간이 이루어야 할 우주적 사명감에 대한 계획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몬테소리의 우주에 대한 개념은 우주의 질서, 조화로운 조직, 통합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²⁶⁾ 우주의 질서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영적인 뿌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주질서를 위해서 우주의 운동, 자연법칙, 생명창조, 질서와 같은 요인들은 우주영성에 근거한다.

우주는 공통된 근원인 물질, 영성, 지성, 생명을 활동적으로 드러내는 다중적인 역할을 한다. 공통된 근원 속에서 영성은 육체를 만들어가는 물질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에 활기를 불어넣어줌으로써 생명을 진화시킨다. 영성은 항상 더 나은 곳을 향해서 진화하도록 모든 생명체를 협조한다.

2. 어린이들의 영성과 평화교육의 관계

몬테소리는 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이지만 우주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교육의 문제라고 말한다.²⁷⁾ 이는 우주와 더불어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변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선택한 것이다. 평화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어린이들은 영성의 뿌리에서 가치를 찾을 때 평화의 가치와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평화와 영성의 관계를 살펴본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성취하려면 우선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평화교육이 선행되어 그들을 마음에 평화로운 영성을 심어주어야 한다. 진정한 평화에 대한 비전은 어린

25) Aline D. Wolf, 위의 책, 155쪽.

26) Aline D. Wolf, 위의 책, 26쪽.

27) Montessori M., *Educazione & Pace*, 위의 책, 19쪽.

이들의 생각을 정의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랑하고, 영성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전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²⁸⁾

평화로운 마음 없이는 교실의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존경심, 교사, 다른 친구들, 사물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지 못한다. 평화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영성과 관계를 가질 때 평화로운 마음이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평화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어린이들이 교실에서 실제로 평화를 느끼도록 만들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화는 어린이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과 자연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협조하고, 보호하고, 영성적으로 행복해 할 때 느낄 수 있는 정신과 영혼을 평화롭게 만들어 줄 때 가능하다.

어린이들에게 평화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자기 환경, 다른 친구들, 자연의 경이로움, 생명체, 무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할 때 진정한 평화를 마음속에서 실천하게 된다. 현재 우리들이 추구하는 다중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 자세로 각 나라의 민속학과 인류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평화적 공존과 창조적인 협력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통감하는 것이다.

〈그림 1〉 어린이들 마음 속에 있는 〈그림 2〉 피부가 다른 친구를 사 〈그림 3〉 다른 생명체를 사랑하
진정한 평화는 바로 나의 모습이다. 랑으로 수용하는 것이 평화이다. 는 것이 평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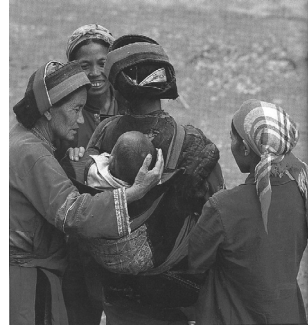
출처: Valeria M. & Beatrice T, *Bambini*, (Milano: Cube Book, 1984).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어린이들, 어른들, 약자와 강자, 노인과 젊은이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양육하고 평화를 위한 인류애를 향해 걸어갈 때 영성이 양육될 수 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초월하여 영성에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자세보다는 열린 자세를, 개인주의와 개인 문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인류 공동체와 다중문화를 통해서 “하나 됨, 단일국가”로 자신들이 영성에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한 것이다.

28) 위의 책, 35쪽.

〈그림 4〉 평화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림 5〉 평화는 친구와 착한 양 〈그림 6〉 평화는 이웃을 보살피
밀착되는 것이다. 이 한 마음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고 양육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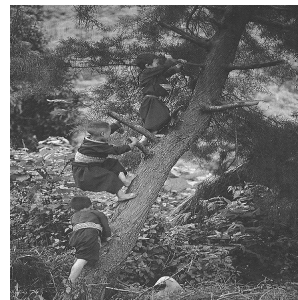
출처: Kling K, *Terre d'infanzia*, (Genova: Ippocampo, 2006), p.13, 14, 15

평화는 고요한 침묵,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자연에 대한 존경심, 자신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된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연을 파괴하고,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영성보다는 사나움으로 영성에 갈증을 느끼게 된다. 자연을 지배하기 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생명체를 경멸하기 보다는 사려 깊은 존중감을,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야 한다. 영성은 인간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그림 7〉 평화는 자연과 더불어

〈그림 8〉 자연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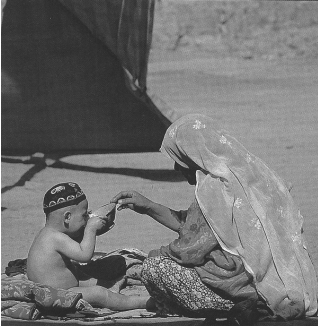
〈그림 9〉 친구들과 함께 자연을 즐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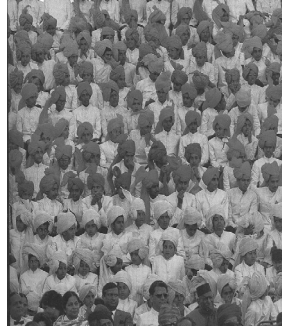
출처: Kling K, *Terre d'infanzia*, (Genova: Ippocampo, 2006), p.104, 105.

어린이들에게 평화는 주변에 있는 인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을 존중하라고 가르친다. 친구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교사를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경쟁보다는 협력하도록 가르치고, 속임 보다는 정의를 가르치고, 선한 행동을 가르치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방향을 잡아준다. 바로 어린이들의 영성을 양육하는 방법이다.

〈그림 10〉 평화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그림 11〉 모든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선을 향하는 것이다.



〈그림 12〉 평화는 말은 하지 못하지만 서로 진심으로 통교하는 것이다.



출처: Kling K, *Terre d'infanzia*, (Genova: Ippocampo, 2006), p.118, 1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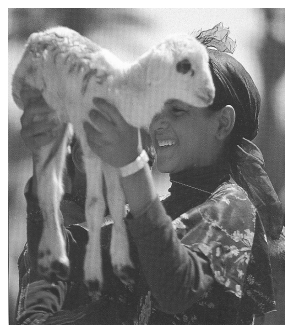
어린이들에게 평화로운 마음 없이 영성이 불가능하고 영성 없이 평화로운 마음이 불가능하다.

어린이들의 인격발달을 위해서 평화와 영성은 서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정상화, 인격화로 안내한다. 어린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만들어 가는 방법은 준비된 환경 속에서, 사물과 교구와 더불어 활동하고, 몰입하고, 자연과 친화적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영성을 육화시킨다.

〈그림 13〉 평화는 친구들끼리 아름다움을 향하는 것이다.



〈그림 14〉 착한 양처럼 사람들에게 기쁨과 온순함을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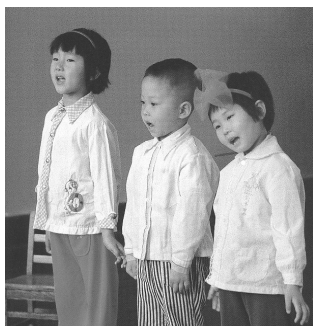
〈그림 15〉 평화는 내일을 위해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출처: Kling K, *Terre d'infanzia*, (Genova: Ippocampo, 2006), p.101.

영성은 미움보다 평화로움, 시기보다 사랑함을, 울음보다 미소를 더 좋아한다. 영성과 평화는 같은 뿌리를 가졌다.

〈그림 16〉 평화는 함께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것이다.



〈그림 17〉 즐겁게 놀이하는 것이다.



〈그림 18〉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출처: Kling K, *Terre d'infanzia*, (Genova: Ippocampo, 2006), p.61, 5.

Ⅶ. 어린이들의 종교교육을 위한 실천방법

몬테소리의 종교교육방법이 전례력에 의한 것이라면 가톨릭에서 주지하는 전례력과 관계는 어떠한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전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²⁹⁾

“전례는 주로 존엄하신 하느님께 대한 흠숭지례이지만 또한 신자들을 위한 교훈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례에 있어서, 하느님은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들은 노래나 기도로 이에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전례에 따라서 질서 있게 행하는 예식을 진전례력이라고 말하고 우리들이 하느님을 흠숭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실천하고, 존중하여야 할 기본적인 예절과 말씀을 시간적으로 나누어 실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긴밀하게 하나로 결합시키는 활동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전례력은 이러한 전례를 실천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나누어 놓은 교회의 식전(式典)이다.

다른 한편으로 전례력은 교회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영성적인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왜냐하면 사도적 활동의 목표는 모든 이가 신앙과 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한 데 모이고 교회 가운데서 하느님을 찬미하여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고, 또한 주의 만찬을 먹도록 하는 것이 때문이다.³⁰⁾ 교회에서 명하는 것처럼 전례력은 교회 활동을 하

29) 성베네딕도수도원,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서울: 한국천주교회 중앙협의회, 1994), 14쪽.

30) 위의 책, 8쪽.

는 지표이고, 어린이들에게 영성적인 힘, 즉 삶의 에너지가 솟아오르도록 힘을 만들어 주는 활동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가톨릭교회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교육, 신앙교육, 종교교육활동을 중요시한다.

교리교육이 신앙을 비추어 견고케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생명을 기르며, 전례의 신비에의 의식적이며 행동적인 참가에로 이끌고, 사도직 활동에로 격려한다.³¹⁾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준거가 전례력이라면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스스로 능동적으로 전례력에 참여하고 사랑 안에 한 마음이 되어 친구들과 구체적으로 전례에 필요한 성물을 교구화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환경으로 아트리움을 만들었다. 종교교육의 측면에서 어른들과 어린이들의 차이점은 어른들은 주로 복음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어린이들은 적극적인 경청과 실제 사물, 교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와 대화를 시작한다. 어린이들의 특징을 사물과 교구를 통해서 상호 활동을 시작하고 사물을 통해서 자유로워진다.

첫째, 어린이들을 위한 종교교육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종교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나 부모들이 성서와 전례력에 대한 연습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책들의 구절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어린이 자신이 독립적으로 하느님과의 말씀과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의미다. 내적인 스승과의 대화인 개인적인 묵상과 침묵관계를 가능하도록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³²⁾ 아트리움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자유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실의 한 영역에 종교교육영역을 준비해 줄 수 있다. 종교교육을 위한 교구장을 준비하여 필요한 전례력 그림이나 성서를 준비해 놓을 수 있다.

둘째로 어린이들에게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교육자료 즉 교구제공이다.

교구를 제공하는 것은 교사를 위한 학습 자료가 아니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종교교육재료는 일반적인 모든 영역의 교구와 일치한다. 종교교육을 위한 교구는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개념으로 이끌어가는 것, 관념론적 사실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도, 학습, 신앙생활의 기초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몬테소리의 종교교육에서 전례력에 활용하는 교구들과 전례력 색상과 연중시기를 표시하는 그림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1) 정의채, 『그리스도적 교육에 관한 선언』,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591쪽.

32) Cavalletti S, 위의 책, 305쪽.



〈그림 19〉 종교교육 교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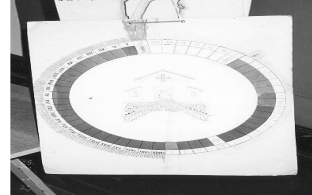


〈그림 20〉 미사를 위한 제대(아트리움)



〈그림 21〉 예수님의 12 제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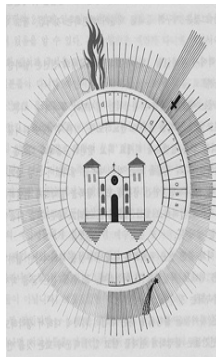
출처: 울산 성모유치원의 아트리움에 준비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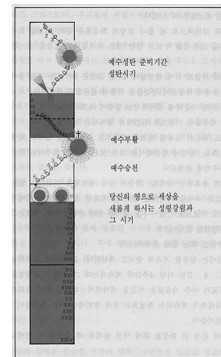
〈그림 22〉 전례력 표시판

전례 색상들	
	보통과 광중시기 대림과 사순절
	성탄과 부활절 초제시기 오순 성령 주일
	성신강림 후 주의 관현 후 유체의 연도와 자선시기
	성신강림절 수확 성탄
	영재를 위한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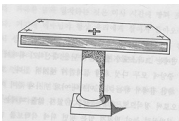
〈그림 23〉 전례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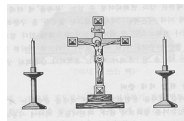
〈그림 24〉 전례시기



〈그림 25〉 전례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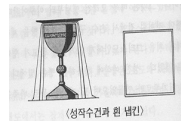
〈그림 26〉 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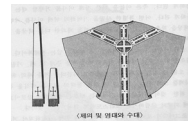
〈그림 27〉 십자가와 촛대



〈그림 28〉 성작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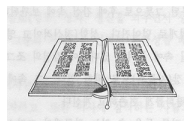
〈그림 29〉 성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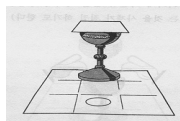
〈그림 30〉 제의



〈그림 31〉 미사장면



〈그림 32〉 경본



〈그림 33〉 성작



〈그림 34〉 영성체



〈그림 35〉 포도주
와 성수

출처: 조성자 역, 『몬테소리의 어린이를 위한 종교교육』(대구, 미루나무, 1990), 45, 75, 82, 42, 103쪽.



〈그림 36〉 두루마리 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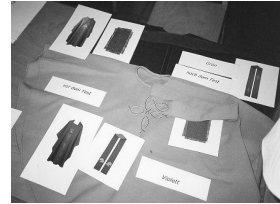
〈그림 37〉 아트리움



〈그림 38〉 교실에 있는 아트리움



〈그림 39〉 제의



〈그림 40〉 제의와 낱말카드

출처: 로마의 까발레티 교수가 운영하는 아트리움. 어린이들이 아트리움에서 교구로 사용하는 성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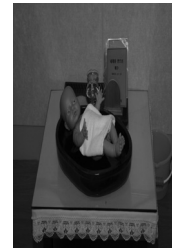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들은 실제적으로 교실에서 전례력에 맞추어서 어린이들이 종교교육에 관한 작업을 하는 장면이다. 어린이들은 아트리움에서 전례력에 맞추어 제의를 입고 미사를 집전하는 연습을 하면서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실제로 전례에 대한 것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어린이들은 사제복과 수녀복을 직접 입고 미사전례에 참여하게 된다.



〈그림 41〉 수녀복과 제의



〈그림 42〉 세족례 연습



〈그림 43〉 구유



〈그림 44,45〉 어린이들이 전례력 시기에 대한 종교교육을 교구와 함께 연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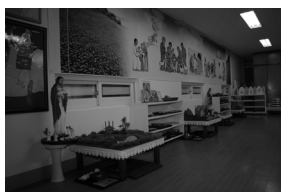


〈그림 46〉 전례력을 사계절과 비교하면서 활동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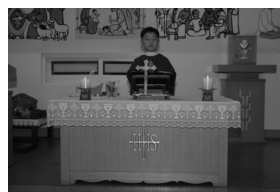
출처: 울산 성모유치원. 몬테소리 종교교육의 모델링 역할을 한다.

셋째, 어린이들의 종교교육을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다.

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종교교육을 위한 간접적인 방법을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종교적 환경을 아트리움(Atrium)이라고 말한다. 아트리움은 어린이들의 종교교육을 위한 작업장이고,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장소이며 그리스도의 생활을 실천적인 방법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장소이다. 즉 아트리움에서 모든 작업들이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작업장이다. 어린이들은 아트리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하여 하느님 말씀의 씨앗을 아트리움에서 파종하게 된다. 아트리움의 전체적인 환경은 다음과 같다.



〈그림 47, 48〉 울산 성모 유치원 아트리움 전경



〈그림 49〉 미사를 연습하는 어린이



〈그림 50〉 12제자와 함께



〈그림 51〉 착한 목자와 함께



〈그림 52〉 전례력을 숫자로 계산 한다.

출처: 울산 유치원 아트리움에서 어린이들의 종교활동 연습시간

넷째, 어린이들의 종교교육을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아트리움이 단지 어린이들만을 위한 신앙 공동체라면 그들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성인과 더불어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어린이들의 종교심은 교사에 의해서만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스도 전체 공동체가 친밀한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 어린이들의 신앙심은 모든 공동체와 더불어 유지되어야 한다.

VIII. 나가는 말

유아교육기관에서 최근에 인성교육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건강한 인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유아교육과정에서

평화교육이 차지하는 영역이 날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의 모든 교육에서 종교교육과 영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격형성의 기본적인 구조로 생각하였다. 그녀의 교육 목적은 어린이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활동을 통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영혼에 점화시킬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육방법은 유아기 때부터 종교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종교적 민감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종교심을 흡수할 수 있도록 물리적, 인적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발달과정에서 종교적 민감기를 고려하여 종교적 본능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이 필요하다면 준비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종교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전례력에 의해서 실천한다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고 그분에 말씀을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트리움이다. 발표자의 의견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종교교육이 일반교육과 같이 일반화되어진다면 그들은 영성적으로 더 많고 훌륭한 삶의 에너지가 생성될 것이다.

참고문헌

- 성베네딕또수도원.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회 중앙협의회. 1994.
- 안만순. 「인격교육과 몬테소리」. 조성자. 『어린이의 세계』 창간호, 대구: 한국몬테소리교육총연합회. 2008.
- 정의채. 「그리스도적 교육에 관한 선언」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서울: 한국천주교회중앙협의회. 1994.
- 조성자. 『몬테소리의 과학적 교육학』. 서울: 신정. 2007.
- 조성자 편저. 『Maria Montessori의 자유개념과 자유작업의 원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6.
- Aline D. Wolf., *Nurturing the Spirit: in Non-Sectarian Classrooms*. 조성자 역. 『어린이들에게 영성은 존재하는가?』. 서울: 창지사. 2000.
- Cavalletti S., *Il Potenziale Religioso del Bambino*. 조성자 역. 『어린이들의 종교적 잠재능력』.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6.
- Montanaro S Q, *Comprendere il bambino* 조성자 외 역. 『Montessori의 이론에 근거한 인간존재의 의미』서울: 창지사. 2001.
- Montessori M, *Educazione & Pace*. 조성자 역. 『교육과 평화』. 서울: 창지사. 1990.
- Montessori M, *La Mente del Bambino*. 조성자 역. 『어린이 정신』. 서울: 창지사. 1991.
- Montessori M, *La Scoperta del Bambino*. 조성자 역. 『어린이의 발견』. 서울: 창지사. 1996.
- Montessori M, *Come educare dell'potenza umana*. 조성자 역. 『마리아 몬테소리의 우주교육—어린이들의 잠재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8.
- Montessori M, *I bambini viventi della chiesa, La vita in cristo, La Santa messa*. 조성자 역. 『몬테소리의 어린이들을 위한 종교교육』. 대구: 미루나무. 1993.
- Montessori M., *Educazione per un mondo nuovo*. 조성자 역. 『몬테소리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어린이 교육』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6.
- Montessori M., *La formazione dell'uomo*. 조성자 역, 『Maria Montessori의 어린이를 위한 인격형성』. 서울: 창지사. 2001.
- Bene-Schulz G., *Gott und das Kind*, Freiburg: Herder, 1996.
- Berry T., *The Great work: Our way into the future*, New York: Bell Tower, 1999.
- Kling K., *Terre d'infanzia*, Genova: Ippocampo, 2006.
- Montessori M., *L' autoeducazione nelle scuole elementari*, Firenze: Garzanti, 1973.
- Valeria M. & Beatrice T., *Bambini*, Milano: Cube Book, 1984.

원고접수: 2009년 5월 22일 1차심사: 6월 8일 게재승인일: 6월 19일

연구자 소개: 조성자

① 전공: 아동교육철학 / 소속: 대구가톨릭대학교

② 관심영역: 몬테소리 교육철학 및 실제 :우주교육, 평화교육, 생태교육 영. 유아 프로그램.

③ 주요논저: 저서: 몬테소리 자서전 외 다수
역서: 몬테소리 전집 완역

④ E-mail: serafinacho@hanmail.net

Abstract

The Theory and Practical Activities of Montessori's Religious Education by Catholicism for Children

Cho, Syeongja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study focused to discuss with religious education for children, based on Montessori's religious education by Catholicism. The religious view of children in Catholicism is showed i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11:15 - "... This all revealed to children..., you cannot enter if not you become like children." This expression publicize that child is a spiritual fetus and has the good distinct of religious. It is the best religious education for children, to teach them to live similar to the life of Jesus Christ.

Therefore, this study aims that children are provide the prepared environment, Atrium as the place of religious education and than they show their spirituality. This process allow them to reveal the religious belief in the Atrium, they practice the life of Jesus Christ, including his birth, death, and rebirth according to Calendarium Liturgicum. It is similar to the process to accomplish their goals through the their curriculu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gardless of religious sects, Montessori's religious education aids children to cultivate their spirituality that is immanent in the inside, to fill with energy, and to live peacefully. For this, Montessori provides the interpretation of children's religious instinct, the understanding of differentiation their religious belief to spirituality, and the way to practice the religious educa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 of children's spirituality and other sciences. We should serve the prepared environment for children's peaceful life in early childhood. And it is possible to practice religious education, cosmos education, peace education, and ecological education.

Key words: Motessori, Religious Latent Faculties, Spirituality, Calendarium Liturgicum, Atrium, Cosmos Education, Peace Education, Prepared Environment